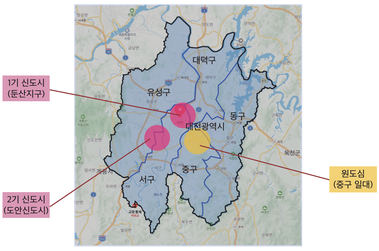
관계인구 형성을 통한 대전 원도심의 지속가능한 축제 기획

- 0시 축제 재편을 중심으로 -

2018875012 민희경
2022875011 백수빈

01 계획의 개요

대상지 소개



대전 원도심은 지속적인 신도심 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쇠퇴했으나, 역사성과 장소성을 간직한 채 독특한 도시 경관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잠재력이 크다.

계획의 배경

구분	대전시의 대표 정책	기대 효과
하드웨어 전략	공공기관 이전, 청년 창업공간	물리적 환경 개선, 고용 · 거주 인구 유입
소프트웨어 전략	0시 축제	이미지 쇄신, 유동 인구 · 매출 증가
과제		
하드웨어 전략은 비교적 고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소프트웨어 전략인 축제의 효과는 기획에 따라 유동적임. 0시 축제는 단기적 인구 유입에 머물고 있어, 장기적 관계 형성을 위한 전략적 재편이 요구됨.		

계획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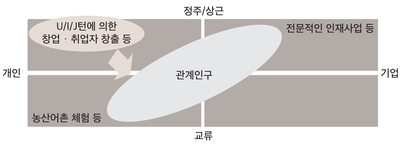
최종 목표: '방문 → 애착 → 재방문' 구조로 관계인구 형성 · 확대

세부 목표
- 방문자가 '다시 올 이유'를 갖게 하는 프로그램 · 공간 연출
- 주민 · 상인 · 방문자 소통 구조 설계

⇨ 단순 방문을 넘어 외부인과 원도심 간 지속 가능한 관계 구축

02 이론적 고찰

관계인구 정의



축제를 통한 관계인구 형성 사례

사례 (연도)	주요 전략	관계인구 성과
시마나미카이도 아트 페스티벌 ('14~)	빈 공간 재생 + 주민 참여 운영	재방문율 52%, 귀촌 · 창업 사례
완주 로컬푸드 축제 ('16~)	농가 체험형 투어 + 스탬프 전게 소비	등록자 1.4만명, 월 1회 구매 38%
성북 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08~)	이주민 주도 음식문화 교류 + 지역 친구 맺기	SNS 팔로우 46%, 재참여 22%

03 계획의 방법

계획 흐름도

계획의 개요		
대상지 소개	계획의 배경	계획의 목표
이론적 고찰		
관계인구 정의	축제를 통한 관계인구 형성 사례	
계획의 방법 및 내용		
리빙랩	인터뷰	워크숍
제안		
컨셉	전략	

리빙랩

리빙랩이란?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함께하는 혁신. 우리 생활 속 크고 작은 문제해결을 위해 시민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Living)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실험실(Lab)을 말한다.

리빙랩의 의의	
사용자	단순한 수용자 입장에서 벗어나 상품 개발에 영향을 미칠 기회를 얻는다.
공급자	사용자 경험을 활용해 실제 생활에서의 해결책을 발전시킬 수 있다.
정부, 지자체	정책적 목표의 지지 근거가 될 활동과 결과물을 얻게 된다.

⇨

시에서 주관하는 0시 축제는 행정, 상인,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따라서 단순히 전문가 주도로 계획을 한다면 이런 장소에서 원가 관을 방장으면 그치 않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서 소비하고 마시고 돈을 쓰고 가는 축제. "

(대전시청공무원 A)

방식	리빙랩 단계	설명 및 효과
심층 인터뷰	문제 정의	실제 사용자 경험 기반 문제 도출 및 공감대 형성. 행정 병행 인터뷰로 인식 차이 파악 가능.
워크숍	공동 해결 및 검증	실제 축제 방문객과 시민들의 니즈를 구체적으로 파악 가능.
공통 효과		
두 방식 모두 축제를 단순 소비가 아닌 참여와 개선의 플랫폼으로 전환하며, 실효성 높은 전략 수립과 관계인구 확대에 기여		

04 계획의 내용

인터뷰 목적 및 세부질문

이해관계자의 니즈 파악

각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협력 구조

각 이해관계자는 '축제' 기획과 운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각 이해관계자는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가
각 이해관계자는 서로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가

각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문제의식

각 이해관계자가 '축제'를 통해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
각 이해관계자는 '축제'에 대해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0시 축제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

각 이해 관계자는 현재의 축제 컨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각 이해관계자는 '축제' 때 도로 통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터뷰 대상 및 일정

No.	구분	인터뷰 일시	인터뷰 대상	인터뷰 방식
1	행정	3/16 (일)	대전시청 공무원 A	1:1 심층면접
2	행정	3/18 (화)	중앙시장 푸스페스타 담당 민간 기획사	1:1 심층면접
3	행정	3/24 (월)	대전시청 관광진흥과	1:1 심층면접
4	행정	3/25 (화)	대전문화재단 정책홍보과	1:1 심층면접
5	상인	3/17 (월)	역전 지하상가 상인회 회장	1:1 심층면접
6	상인	3/17 (월)	역전 지하상가 상인 A	1:1 심층면접
7	상인	3/17 (월)	역전 지하상가 상인 B	1:1 심층면접
8	상인	3/18 (화)	역전시장 상인회 회장	FGI
9	상인	3/18 (화)	역전시장 상인회 사무국장	FGI
10	문화예술인	3/17 (월)	대전 원도심 문화예술인 행동 회장	1:1 심층면접
11	문화예술인	3/21 (금)	대전 원도심 문화예술인 행동 사무국장	1:1 심층면접
12	시민	3/16 (일)	20대 여 A	FGI
13	시민	3/16 (일)	20대 여 B	FGI
14	시민	3/16 (일)	70대 남	1:1 심층면접
15	시민	3/17 (월)	50대 여	1:1 심층면접
16	시민	3/21 (금)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FG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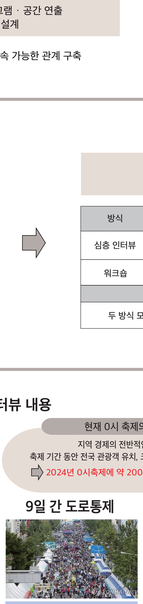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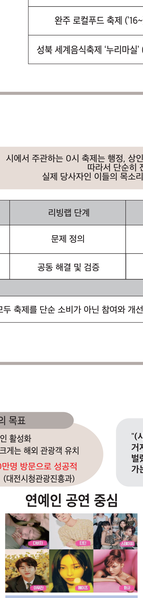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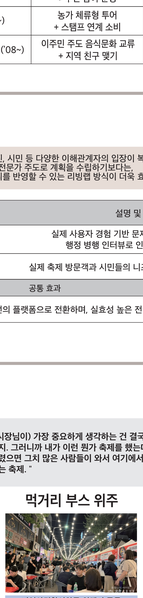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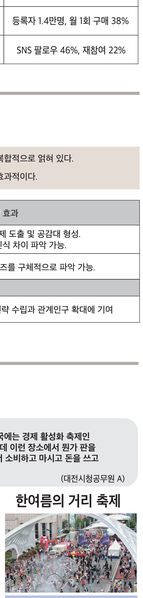
인터뷰 내용

현재 0시 축제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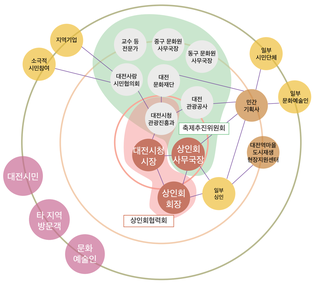
지역 경제의 전반적인 활성화
축제 기간 동안 전국 관광객 유치, 크게는 해외 관광객 유치
⇨ 2024년 0시축제에 약 200만명 방문으로 성공적
(대전시청관광진흥과)

"(시장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결국에는 경제 활성화 축제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런 취가 축제를 했는데 이런 장소에서 원가 관을 방장으면 그치 않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서 소비하고 마시고 돈을 스고 가는 축제. "

(대전시청공무원 A)

	9일 간 도로통제	연예인 공연 중심	먹거리 부스 위주	한여름의 거리 축제
				
행정	도로통제를 하지 않으면 행사공간을 확보할 수 없음	연예인 없으면 사람들이 안 올 거라 생각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서 골목 먹거리 부스들을 그 상인 상인들로만 구성하고 있음	여름 휴가철을 이용해 대전의 비수기 활성화 목적
상인	2~3일은 괜찮지만 장사에 피해를 보는데 9일은 너무 김	메인 무대 근처만 효과, 골목은 오히려 손해	부스를 얻은 일부 상인만 참여, 상권에 정작 먹거리는 별로 없는데 먹거리만 잘팜	원래 8월은 비수기라 상권에 사람 별로 없어서 좋은 방향성이라 생각
문화예술인	거리예술제로서 굉장히 가능성이 큰 무대, 하지만 현재는 지역 문화예술인 소외	연예인이 잠깐 올 수는 있지만 지역 예술인이 주가 돼야	먹거리 부스가 없는 축제도 가능해야, 지속가능한 축제 돼야	거리예술 하기에 8월은 너무 덥다
시민	특별한 경험(광장의 의미, 학생운동 역사, 비일상)으로는 좋지만 기간이 너무 길어 불편함	연예인이 온다고 해서 갔지만 막상 갔을 때는 별로 보지 못했고, 기억에 남지 않음	원래 시장에 팔던 음식이라 다양성 부족, 골목 정취 사라짐	너무 덥고 사람이 많은데 통제가 잘 안 되어서 즐겁지 않음

0시 축제 의사결정 구조



상인회 협력회
(축제 지역 각 상인회 회장과 시장 참여) ⇨ 축제 전 6번 이상 실시

축제추진위원회
(기타 주관 기관, 각 상인회 사무국장, 유관 기관 실무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참여) ⇨ 축제 전 5번 정도 실시

정해진 틀 안에서 세부사항 정도만 조정

상인
회장님이랑 (회의에) 들어가는데 특 상인들 위견을 묻기는 해도 그렇 또 다 반영해 주는 건 또 아니고 저기 개최에 선 게 있어서 잘 양보할 수 있는 관광한 하고 저기들은 정부고 약 이런 게 많아가지고 상인들 위견도 그렇게 많이 반영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같았으면 그 축제 기간이 가니까 좀 줄어 들려든지, 방식이랑 이 축제를 대 시에서 조금씩 주는데, (여기는) 축제 때 피해를 많이 보니까 인센티브를 더 달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아예 안 먹혀요

(역전시장 상인회)

문화예술인
제가 여기에(지역에) 문제가 있는 거는 계속 관심을 갖고 (전문가나 시에) 공문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축제에 대해서는 공적을 잘 해요. 솔직히 가리킬 정 느낌이랄까. 예, 뭣 느껴고 있고 솔직한 얘기로 이음이 안 맞아요. 오구를 하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지역)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문화예술 인분기들과 얘기를 나누어 보자 했는데 하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 답답고.

(한도심문화예술단행동 회장)

시민
사실은 시민 참여가 활성화된다는 거는, 시민들의 부스가 많아지고 인지 한 아니라, 실제로 기획단계에 공정단계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거나 문제점 수 있는 이벤트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뜻이죠. 근데 지금은 막 그냥 그냥 이렇게 지금은 행정은 기업이 그냥 이렇게 가면서 그런데 이게 시민들한테 이게 행정이 하는 이벤트에 지금은 행정은 지금은 전문가고 시민들은 이런 거예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 주도라는 표현보다는 좀 더 축제에서 더 중요한 거는 축제를 통해서 이익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요. 특정 이익 생겨를 특정 누군가만 얻어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이익은 저 공간적인 이런 이야기에는 안 아니고요. 축제를 통해서 상하도, 번화로, 원 다 느끼는 게 다 다르죠. 그거를 느낄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시 축제 안 했어, 이야 대전 시민들도 이나라도 해? 그러니 '없어졌어?' 이렇잖아? 이해관계자가 그런데 없어 우릴지지 않은 거고. 축제가 지속가능하려면 이해관계자가 많아야 돼요. 광장지 참여야 돼요.

(원도심문화예술단행동사무국장)

각 이해관계자의 니즈

상인 — 축제 기간을 넘어선 지속적인 방문객 유치

우리가 원도심 프로젝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지. 매출도 상당한 기여를 하지만 와서 '이런 데도 있었네', '어 원도심에 이런 것도 있었네'라는 걸 보고 가는 거를 말하는 홍보 차원에서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지. 좀 불편해도.

대흥동상점가 상인회 회장

문화예술인 — 자유롭고 활약할 수 있는 무대, 네트워킹의 장

축제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그 시간만큼이라도 편안하게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고 또 그 문화 예술이 서로 축제를 통해서 서로 교류하고 그래서 그 친목 속에서 더 많은 예술 세계가 새롭게 장작이 되고 그걸 통해서 앞은 사람들이 (축제 이후에도 이 지역을) 계속해서 찾아오는 브랜드 축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트워크 장이고 하나의 그 기간 동안만큼은 영원난 거버넌스를 만든 거죠.

원도심문화예술단행동 회장

시민 — 힐링, 휴식, 특별한 경험과 의미 있는 추억

대전에서 관광 축제처럼 영시 축제에서 관광처럼 무대놓지 말라는 얘기야. 내 얘기는 예 그게 관광도 아닌데 기기 다 지역 먹어놓고 사람들 일하는 곳에서 그러고 앉나 이거야. 그럴 거면 차라리 대학생들이 발판이 되고 사회인들의 발판이 되는 영시 축제가 되면 오히려 차 막아놓고 애들의 시작을 위해 응원하는 건데 그 정도는 해주면서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 대학 불판은 없어, 근데 상인들(만)을 위한 발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대전시민 A (20대 여성)

현재는 행정, 특정 상인들 외에 아무도 원하지 않는 축제이다. 축제가 지속 가능하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의미를 느끼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단순한 경제적 이익이나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라, 지역에 대한 애정과 의미 있는 경험을 주는 축제를 바란다.

워크숍 개요

날짜	2025.04.18(금) ~ 04.20(일)
장소	대전광역시 원도심 일대 (중앙동, 인동, 은행동, 대흥동, 선화동)
참가자	서울시립대학교 학생 9명 + 대전 시민 7명

⇨ 대전 시민들에게는 익숙해 보이지 않던 지역의 매력을 서울 참가자들의 신선한 시선으로 발견

워크숍 구조

1일차~2일차
서울 참가자 대상 원도심의 다양한 모습 체험
1인 1개 일회용 필름 카메라 지급
→ 인상 깊은 장면 촬영

3일차
서울 · 대전 참가자 혼합 2개 조 구성
필름 사진을 바탕으로 서로의 시선 공유, 원도심의 매력 도출

워크숍 중 장소

첫째날
1. 트래블라운지
2. 여기소제
3. 성심당문화원
4. 구석으로부터
5. 아트시네마

둘째날
1. 중도서점(현책방)
2. 턴테이블(LP판매점)
3. 육척시장
4. 인홍상가아파트
5. 헤레디움
6. 다다르다

셋째날
1. 원도심레츠

워크숍 내용

활동 1. 원도심의 매력 요소 파악

① 정갈 있는 삶의 모습
· 아파 감동해 할은, 맛 이야티의 일상, 주민들의 생활상이 물아는는 거리

"구도심의 정갈있는 모습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외부 카페나 공간"

② 다양성이 보이주는 주민 커뮤니티
· 대전에 인근에 한이어 가리와 중앙시장 곳곳에 있는 해외 이주민의 가게들

"이주민의 도시 로컬+이주민(이주노동자)의 문화가 공존하는 시간. 다양성."

③ 남아 있는 옛 풍경
· 소제동 철도관사촌, 목척시장, 인홍상가아파트 등

"소제동 철골복도: 대전역에서 가까운 곳에, 흩고 흩어져있어서 공간이 있어 매력있다. 오래된 관사들과 그 속속히 나무들 소제동만의 특별한 분위기는 것 같아 신선했다."

④ 아날로그적인 공간들
· 턴테이블, LP가게, 빈티지숍 등

"턴테이블 #중도서점 #빈티지 · 레코드 등 한 한번, 오래된 한곳, 인쇄, 고양 등 수많은 책이 건물 채로 그득히 차 있다. 작은 스크린 속 수많은 정보들을 보다가 그 많은 정보들을 파서 나를 통해 소개하는 것, 서점이 번화한 지금 속, 독특한 경험을 느낄 수 있었다."

⑤ 휴먼스케일의 경관
· 낮은 건물 + 선과의 조화, 탁 트인 하늘

"높고 답답한 고층건물들보다 훨씬 건물들이 많이 이기지기고요. 하늘도 잘 보이서 탁 트인 느낌이 좋다."

"보문산 산이 적경적으로 높지는 않아도 건물이 낮아서 산이 잘보이는 것이 좋다."

활동 2. 재방문 요인 파악

질문 1. 대전을 다시 찾고 싶은 이유는?

서로 연관된 요소

우연한 발견	이유로운 도시 분위기	레트로한 도시경관
"의외성 이끌린? 2차원 지도에서는 못 했던 3차원에서만 볼 수 있는 의외성. 성심당에서 빵만 먹으러 왔다가 · 소제동 카페만 가려 했다가 · · 그 속에서 발견한 화랑, 정원은 동 이렇 후 새로 발견한 무언가가 재방문 요소일 것 같고, 그게 제주 장점인 것."	"조용하고 나른하고 푸근한 느낌이 드는 도시라서 와서 휴식하고 싶다. 대전만의 느낌이 잘 살아 있어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대전은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도시경관을 발달한다. 레트로한 느낌이 대전 원도심의 핵심적인 분위기라서 편안한 학 상점들 등 가고 싶다."

참가자들은 워크숍 중 지도 보지 않고 골목 탐험하기, '자전거 여행', '지역 주민 추천 장소' 방문 등 행동을 하기도 함.
⇨ 사발적인 탐험과 우연한 발견이 '나만의 경험을 만들어 줌

공용 자전거 따슈

다다르다 사장지기님 추천 장소 지도

질문 2. 다른 도시와 차별되는 대전의 특징은?

골목마다 숨은 다양성	이유로운 도시 분위기	지역에 애착이 있는 시민
"작은 아틀리에, 갤러리, 화랑 등 작은 문화예술소가 다양하고, 많이 도심 곳곳에 있는 것에다." · "프랜차이즈가 아닌 다양한 개인 가게들" · "노포 성심당이라는 거예 · · 다양성이 붙힌 느낌."	"도시임에도 한적한 분위기가 매력적." · "느림의 미학" · "과거의 모습이 잘 살아있고, 1990~2000년대의 분위기가 잘 녹아있는 도시."	"대전의 깊은 역사 때문인지 다른 도시와 달리 대전에 애착을 갖고 관심을 갖는 시민들들이 많은 것 같다." · "한긴의 노력으로 도시마케팅이 잘 되어있다."

질문3. 대전 사람만의 성격이나 특성은?

낭만적	여유로움	지역에 대한 자부심
"사람 감동이 깨끗하지 않았던 모르겠으나— 감을 잘는 예술인(한단+훈장년)이 많다."	"마음이 여유롭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 "사투리 첫인지 조금 느슨한 편인 것 같다." · "여유롭다"	"도시에 자부심을 가진 시민들이 많다. 역사와 시간의 흐름이 물든 장소가 많아 자부심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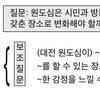
워크숍 기간 중 대전, 특히, 원도심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시민들을 만났고, 서울 참가자들은 이들과의 교류에서 낯선 역, 여유로운, 지역에 대한 자부심 등을 매력적으로 느꼈다.
⇨ 사람과의 교류 > 지역 매력 요소 중 하나

활동 3. 원도심에 대한 니즈 파악

질문: 원도심은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어떤 기능과 매력을 갖춘 장소로 변화해야 할까?

보조질문
(대전 원도심이) ~한 장소가 되면 좋겠다
~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되면 좋겠다
~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되면 좋겠다

조별 의견 취합



서울과 대전을 섞어서 조를 구성

전체 투표

총 2번 투표
(순위 2점, 그순위 1점으로 계산)

1위	2위
특색있는 공간	인간적 교류
옛 모습 보존 골목 곳곳의 다양성	인간적 교류를 바탕으로 로컬의 콘텐츠를 가져, 상권할 수 있는 장소
15점	11점
3위	**4위**
보행, 대중교통 친화	매력 홍보 중요
보행하기 좋은 잔고 싶은 거리와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리한 대중교통	이미 있는 매력을 알릴 필요가 있음 (예: 성심당과 연계)
10점	8점

워크숍 중 이야기를 들려주신 분들

No.	성함 및 직책	참가 일정	내용
1	지역 여행사 진DoL 박선서 대표	1일차, 2일차	소제동 로컬가이드 투어, '대전 여행의 이해' 특강
2	공간 구석으로부터 송부영	1일차	공간 '구석으로부터' 소개
3	대흥영화사 배기웅 감독 & 지역 문화예술인들과의 대화	1일차	대전 배경 독립영화 '대전로코' 상영회, 지역 문화예술인들과의 대화
4	지역 여행사 진DoL 박진서 대표	2일차	대전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5	서점 다다르다 김준태 대표	2일차	지역 축제 '시티 페스타' 기획의도 소개, 지역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
6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설재균	3일차	지난 0시 축제 시민 모니터링 결과 소개

결론

인터뷰 결론
지역에 필요한 축제, 시민들이 원하는 축제

니즈		새로운 축제 비전
상인	상권 홍보 & 시민 재방문	연예인, 먹거리 외에 로컬 콘텐츠 활용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축제 골목까지 사람들 유입
문화예술인	주체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무대와 네트워킹	곳곳에 작고 가까운 무대 → 시민들과 가까이에서 소통
시민	힐링, 휴식, 특별한 추억 의미있는 경험	골목 정취 · 천변 여유 살린 거리공연 + 체험형 프로그램

워크숍 결론
시민, 방문객이 찾는 원도심의 매력

재방문 매력 1
골목 다양성 — 골목에서 우연히 발견한 '나만의 공간'

재방문 매력 2
느긋한 분위기 — 레트로한 건물, 낮은 스카이라인, 정감 있는 생활

재방문 매력 3
매력있는 사람들 — 도시에 애착과 자부심을 가진 시민들과의 교류

지역의 매력을 통해
상인, 문화예술인, 시민의 니즈를 연결

종합 결론
앞으로의 0시 축제의 방향성

종합 비전 1
골목골목을 탐방하며 의외의 발견이 있는 축제

종합 비전 2
원도심만의 정취를 느끼며 휴식할 수 있는 축제

종합 비전 3
지역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축제

05 제안

컨셉

'다시 원도심'

대전 원도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꾸는 시간

현재 0시 축제의 과거-현재-미래 시간이행 컨셉을 재해석.
원도심의 과거-현재-미래를 연결하여 사람들의 교류를 만들어내는 축제로서 방문객, 참가자들에게 의미와 보람을 준다.

과거
잊혀져 가는 원도심의 정체성, 추억이 쌓이는 원도심
⇨ 옛 건물, 골목이 살아 있는 목척시장, 옛 건물들, 사용 가능한 근대문화유산 건물들을 축제 공간으로 활용

현재
원도심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커뮤니티들을 재조명
⇨ 원도심의 주민 커뮤니티 공간들을 활용하고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참가해서 방문객과 교류하는 프로그램 운영

미래
지역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들
⇨ 원도심에서 지역 기반 프로젝트 및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등 지역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인사이트가 데이나는 교류 장을

전략 1. 단계별 교류 설정

테마	과거	현재	미래
관계형성 단계	애정, 호기심	소극적 참여	적극적 참여
방문객 경험	지역에 대한 호기심을 가졌게 출축. 자신이 사는 지역의 역사를 통해 소속감에 방문을 하다.	지역의 살지 못했던 커뮤니티 공간에서 그들의 활동을 체험을 통해 깊힘.	지역에서 살을 원주는 의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탐색.
프로그램 성격	추억의 공간들에서 원도심의 과거를 보여주는 문화 체험. 전시 프로그램.	원도심 주민 커뮤니티 공간들에서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	원도심, 대전에서의 정있 및 참여의 프로젝트를 통하는 사람들이라의 네트워크의 장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전략 2. 골목 부스 대신 건물, 오픈스페이스 중심의 축제 공간 운영

과거			현재			미래		
공간	공간 설명	프로그램 예시	공간	공간 설명	프로그램 예시	공간	공간 설명	프로그램 예시
목척 마을	옛 건물, 기억들이 그대로 남아 있고, 옛 건물을 활용한 카페나 식당이 곳곳에 운영 중 빈집이 많음.	빈집을 활용해 '옛날 도목상, 인형방을 체험.	원도심 레츠	옵잇이, 재능기부 공동체인 원도심 레츠의 공간. 매주 공유주방에서 식사 모임.	레츠 회원들의 재능기부 세미스. 해인정 체험.	옛 대전부시청	근대문화유산 1937년 300인 대기 회소의 청사.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예정. 대규모 실내공간이 있다.	원도심 창업 상담 부스. 창업 창업 인재들의 홍보부스
대전여중입당	근대문화유산. 현재 '대전 갤러리'라는 전시시설로 운영 중.	옛 학창시절을 추억하는 사진, 물품 전시. 추억의 일기장 음식과 간식 판매.	청춘 다락	세계음식 식당들이 밀집해있는 한의면 인쇄 거리에 위치하는 시에서 운영하는 공유 주방 및 커뮤니티 공간.	해외 이주민 커뮤니티가 운영하는 맞춤 세계음료가게.	우리들 공원	여러 공연장 무대가 있고 차지, 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 지역주차장이 있음.	대전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동호회 홍보부스
중앙다방	1970년대 분위기 그대로 운영 중인 다방.	문학 동호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많이 그리워 해함.	청춘 학교	청규교육을 받지 못한 어려신들에게 기초 한글 교육 등을 제공하는 성인문해학교.	어르신들 그림을 활용한 스탠딩 리스트 전시가 해함.	옛 대전역사	1905년 개통된 경부선 대전역. 근대문화유산. 이후 대전역 이전 후 방치되어 있음.	대전역 시간여행 체험

전략 3. '이야기 상점' 운영

주인, 지역 상인들이 원도심의 추억과 생생한 본인의 스토리를 들려주는 일종의 휴먼 라이브러리

프로그램 맵핑